



#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한 달간의 NY 방문을 잘 마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이렇게 사역지에 다시 돌아 왔습니다. 지난 NY 방문을 기억하면 마치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잠에서 일어난 것처럼 잔잔하고 평온한 감사와 감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도 수 많은 예배를 드려 왔었지만, 이번 방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오랜만에 제가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을 예배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으로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동안의 적은 수고가 봄 눈 녹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하여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전도 폭발 훈련'을 받게 하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고 어려운 이민 생활인데도, 분에 넘치도록 환대를 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빛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끼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다름아닌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한국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사역의 무거운 짐을 마치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곳에 왔다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사역을 혼자서 떠 안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NY 방문을 통하여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큰 교만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가족처럼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는 주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미처 몰랐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묵묵히 선교의 사명을 힘껏 감당하는 정말 '보석'과 같은 주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 19:18)**

이번 NY 방문을 통하여 여러분께 현지의 자세한 선교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더욱 더 독려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돌이켜 보니 제가 도리어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선교의 힘을 얻어서 이곳에 돌아 온 것 같습니다. 너무도 과분한 사랑과 대접으로 마음도 부유 해지고 체중도 조금 늘어서, 이제 더 힘 있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시 52:9)**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제가 잘 만드는 요리가 있습니다. 요리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거창하지만, 라면 및 파스타 종류등 '면' 요리는 아내가 인정해 줄 정도로 아주 잘합니다. 면발은 탱탱하게 살아 있고, 음식의 온도는 가장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제 요리의 비법(?) 입니다. 똑같은 라면일지라도 시간과 온도 차이로 인하여 면발은 물론 국물의 맛까지 좌우하게 되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일 때면, 라면을 냄비에서 그릇으로 옮기는 시간과 라면을 상에 올려 놓고 기도하는 시간등을 고려해서 아주 약간 덜 끓인 상태의 라면을 준비합니다. 그래야만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정작 먹을 때에 제일 맛있는 상태의 라면이 됩니다. 이렇듯 라면을 하나 끓이는데도 시간 조절과 온도 조절이 맛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이 잘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 저와 같은 이방인을 집으로 초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우기 넉넉지 않은 살림 가운데, 음식과 문화가 다른 저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결심과 계획이 필요한 것을 잘 압니다. 몇몇 기억에 남는 음식 초대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현지 교인으로부터 아침 식사 초대가 있어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꺼번에 한자리에 앉기도 좁은 공간에서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차려 놓습니다. 한국인들은 현지인들이 먹는 쌀과는 다른 찰기가 있는 쌀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전해 듣고, 현지에서 '일본 쌀' 또는 '자바 쌀'로 불리우는 찰기가 있는 비싼 쌀로 지은 밥을 내놓습니다. 그것도 그냥 쌀밥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혼식을 주로 한다는 것을 듣고 팔을 섞어서 정성껏 지은 팔밥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침에는 주로 빵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에 한 것을 기억하고 식빵을 함께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아무런 반찬이 없습니다. '팔밥과 식빵'... 그리고는 저희가 보는 앞에서 손수 식빵 사이에 팔밥을 넣어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팔밥 샌드위치'를 대접 받았습니다. 팔밥이 마치 햄이나 크림 치즈인양 식빵에 인심 좋게 듬뿍 넣어서 만든 '팔밥 샌드위치'....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한 그 '팔밥 샌드위치'의 맛은 먹어 본 사람만 압니다.

이번 NY 방문을 마치고 각 사역지를 다시 돌아보는 중에 술롭 (Sulop) 이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현지 목사님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사택에 들어가 보니 손님과 함께 식사할 자리도 변변치 않아서, 저로 인하여 목사님의 아이들은 그릇을 들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들어 옵니다. 식탁 한 가운데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쌀밥이 놓여집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주 메뉴인 한국인이 주로 먹는 닭도리 탕과 비슷하지만 국물이 좀 더 많은 닭국이 들어 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저도 사모님이 덜어 주시는 밥과 닭고기와 국물을 푸짐히 받고 식사를 하는데, 그만 첫 손가락을 입에 넣고 급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음식은 미처 예상치 못한 온기가 없는 '식은 밥'과 '식은 닭고기'와 '식은 닭 국물'인 것입니다. 아마도 아침에 불을 피워 요리를 한 이후에 데우지 못하고 그대로 점심으로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장작이나 숯으로 불을 피워 식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때를 맞추어 음식의 '온도 조절'이나 '시간 조절'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더운 닭 국을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온기가 없는 식은 닭 국을 먹어보니,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닭 고기의 온갖 부위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 가운데 닭 머리와 함께 닭 벼슬도 보이고, 발톱이 보이는 닭 발도 보이는데 아이들은 오도독 오도독 문 밖에서 맛있게 먹습니다. 저로 인해서 귀한 닭 한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한 것인지 제가 잘 압니다. 비록 입 안과 뱃 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맛으로 인하여 복잡했지만,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느끼며 정말 눈물이 나도록 맛있고 감동적인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시간'이나 '온도'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면 기쁨과 승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NY를 방문하기 얼마 전에 마띠 지역 근처의 솔롭 (Sulop) 이라는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마띠 교회 및 고등학교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동일한 사역을 솔롭에 있는 교회와 고등학교에도 적용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띠에서 직접 목사님을 만나서 솔롭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보니,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마띠에서도 24 Km 정도를 더 멀리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띠 지역을 한번 방문 하려면 교통 문제가 너무 벅차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보다 24 Km를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이동을 위하여 적어도 30분 이상을 더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롭 목사님의 제안을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희의 역량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NY 방문 이후에 생각을 해보자고 하며 도망치듯 이야기를 정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NY에서 지나는 동안 솔롭 지역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데, 옆드릴 때마다 아직 가보지도 못한 솔롭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동이 용이한 가까운 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 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솔롭을 향한 기도가 더욱 더 간절해 집니다. 솔롭 지역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NY 방문을 마치고 사역지에 도착하자 마자, 제가 도착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솔롭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롭 목사님도 기도하는 중에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하고, 제 결심을 미리 다 알아 버린 양 빠른 시일 내에 솔롭을 방문해 달라는 것입니다.

솔롭 교회는 매주 20여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연합한 교회인데, 주중에는 매일 약 50여명의 가난한 미취학 아이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처에 약 1,6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들을 복음화 하기 위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의 마띠 지역 사역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재 역량에 비하여 미취학 아이들을 돌보는 일마저도 너무 힘겹고, 고등학교 사역은 생각뿐이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로 준비케 하셔서 이러한 배경을 듣는 중에 솔롭 고등학교에 복음이 전해 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일단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솔롭 고등학교를 찾아 가기로 했습니다. 솔롭 교회 목사님의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앉아서 복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눅 12:12)**

솔롭 고등학교는 마띠 고등학교에 비하여 역사도 길고, 외관상으로 학교 교실과 교무실도 갖추어진 제법 큰 학교 이었습니다. 미리 선약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이 순조롭지는 않겠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소개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자 하니 미리 약속을 하고 간 것보다도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부드럽게 저희를 맞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현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현지의 낙후된 마띠 고등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솔롭 목사님의 소개를 시작해서 너무도 쉽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마띠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중, 장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실과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현재 솔롭 고등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들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홍수로 인해서 솔롭 고등 학교 전체가 잠기는 일이 발생 했었는데, 기존의 도서실에 몇권 되지 않는 책이 있었지만 그마저 모두 물에 잠겨서 이제는 더 이상 도서실을 사용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600 여명의 학생을 위하여 현재 낙후된 컴퓨터 10대가 있는데, 그나마 학생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은 5명이 1조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시간밖에 사용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유명 무실한 도서실과 컴퓨터실을 개선하고 싶지만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이곳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위 인성 교육을 하려고 적합한 선생님을 물색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솔롭 교회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번 고등학교 4학년 (미국의 10학년) 학생들을 지도해 줄 수 있냐고 거꾸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의 하나가 마땅히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신앙을 전담할 수 있는 '교목'을 세우는 것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솔롭 고등학교부터 가능성이 먼저 열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에 대하여 솔롭 목사님 마저도 가슴 벅차합니다.



솔롭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 의하면 솔롭 고등학교에는 약 1,6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율은 졸업생의 5%가 안되는 실정이고, 학업을 제 때에 마치는 학생도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모두가 부모를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게 되는데, 자존감이나 삶의 목표가 분명한 학생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솔롭 고등학교에 복음이 들어 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매주 한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월 한번씩 전교생 중에서 자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마땅히 고등학교의 교실 벽공사와 도서실이 완료되는대로 솔롭 고등학교에도 도서실과 컴퓨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솔롭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및 솔롭 학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책 한권 없이, 컴퓨터 한 대 없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공수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시작으로 솔롭 고등학교에 복음이 잘 전해져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일 5:7)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